

**전도주일
설교**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18:9~11>



전 성 삼 목사 (니이가타교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엘리아는 바알 예언자들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이세벨의 말로 인하여 두려움에 지배되어 도망을 쳤다. 엘리아는 <여호와여 너의 생명을 거두소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무나도 무거운 중압이 엘리아를 덮치고 있었다.

중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갯세마네 기도처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8장에서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전도를 쓰고 있다. 밤에 환상을 보기전에 바울은 놀라운 선포를 한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어떠한 큰 반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곧 이방인 전도를 할 것이라는 결의가 나타나 있다.

전도는 영적싸움이다. <밤>에 영적인 중압이 바울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침묵하고 싶다.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힘이 다. 그러나 그럴때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금년,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고, 주께로부터 승리의 선언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받은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다.

첫째로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죄에 빠져서 지배하는 쪽에서 지배를 당하는 쪽으로 옮겨졌다.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였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

두번째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주님은 명하셨다. 전도가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강조하셨다. 지금 넘치

는 많은 정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실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로마서10:17). 말씀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은 침묵하고 있다. 강단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만 있고 끝나는 신도들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전도야 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셋째로, 큰 위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약속이다. 거절받을 못하는 주님이 항상 어디서나 함께해 주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한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분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약속의 말씀이다.

넷째로, 우리의 사역,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축복이다. 엘리아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주님은 사용하셨다. 바로 보통 사람이였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도 사용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주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한14:12)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일본에 우리를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니 <이 일본에는 주 예수의 백성이 많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태복음9:37-38)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셨다.

한국의 한 선교사가 말했다. 일본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그는 <일본에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피가 헛되지 않기에 반드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나도 믿음으로 말한다. 이 일본에 부흥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자.

讚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 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韓日対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관서지방회

2019년 신년사경회 개최 교역자 세미나도 동시에 열어



관서지방회 전도부가 주최로 한 2020년 신년사경회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5:9)라는 주제로 1월11일(토)부터 13일(월)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관서지방회에 소속한

3명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들었다.

첫째 날은 1월 11일(토) 오후 7시부터 오사카교회에서 열렸고(72명 참여), 이승후목사(교토히가시야마교회)를 통해 “발붙일 만한 땅도” (행전7:4~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

둘째 날은 1월 12일(주) 오후 3시부터 오사카북부교회에서 열렸고(91명 참여), 김대현목사(난코전도소)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힘” (왕상19: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

셋째 날은 1월 13일(월) 오후 6시부터 교토남부교회에서 열렸고(53명 참여), 배재애목사(교토교회 부목사)를 통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히12:1-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

또한 그날 오후 2시부터 “평화통일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교역자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평화통일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 정연원목사(오사카교회)를 통해 올해 10월에 개최 예정인 평화통일선교회의에 관한 보고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보고: 전도부서기 김유양전도사)

서남지방회

정초사경회 및 도제직회 열어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라는 주제로



「서남 지방회의 정초사경회 및 도제직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2020년 1월 12일 오후 福岡교회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집회는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라는 주제로, 팍용길목사(沖繩교회)가 강사로, 첫 번째 시간에는 <충분히 먹어라> (딤후 3:15~17), 둘째 시간에는 <변화가 답이다> (롬1:15~17) 제목으로 은혜롭게 설교하였다.

도 제직회는 서남지방회장인 김인파목사의 사회로 각 교회의 새 표어와 목회계획

그리고 교회의 형편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모두 주일사역으로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밀도 있게 진행되어서 각 교회의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멀리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서남지방회 각 교회의 50여명 신도들이 참석해서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보고 : 팍용길목사)

서부지방회

한일 교류 신도대회 개최 『주는 하나, 신앙은 하나』라는 주제로

서부지방회와 일본기독교단 효고교구와 공동주최로 지는 2020년1월13일(성인의 날), 神戸東部教会에서 <주는 하나, 신앙은 하나> 라는 주제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고후 12:9)라는 부제를 가지고 제36회 한일 교류 신도대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糸原由美子실행위원장(교단 栄光교회)의 사회로 한국어 및 일본어 성경봉독 한일연합성가대의 할레루야 합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한승철목사(神戸東部教会)가 설교하고 성찬식을 거행하였으며 이어서 2명의 성인 축복식이 寺崎真전도사(교단 小野교회)의 사식으로 거행되었다.

예배후에는 분단으로 나누어 식사 및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오후에는 <竹中真씨의 찌즈연주와 간증> 을 통하여 참가자 모두가 은혜받는 시간을 가졌다.

폐회예배에서의 헌금은 <長生탄광의 역사기록회> (山口県宇部市) 와 <태풍15호, 19호 피해지> 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는 교단 효고교구에서 24교회69명, 서부지방회에서 6교회 34명, 합계103명이 참석하였다.

(보고: 양창희장로)



서남지방회

크리스마스 음악예배열어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가져

12월8일, 下関교회에서 서남지방회 9교회 94명이 모여 크리스마스 음악예배를 드렸다. (서남여성회 청년회 주최)

1부 예배는 한경아 청년부장(福岡교회)의 사회로 김성언목사(下関교회)가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시작된 것을 배우고 어두운 시대 곤란한 상황에 있어도 사랑과 진실을 가지고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히 행하자」 고 설교 했다.

또 연합성가대 (지휘 : 고문국장로, 반주 : 조용현집사)가 주를 높게 찬송하고 천봉조목사(折尾교회, 여성부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교류회는 고요한, 김초록씨(福岡교회)의 사회로 각 교회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전 참가자가 등단하여 수화합창, 춤, 찬송, 후라댄스, 민중무용 등의 촌극이 있어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희망그리스도교회

제1회 중앙위원회 개최 따뜻하게 환영해 준 각교회에 감사

지난 2019년 11월23일(토)부터 24일(주일)에 청년회 전국협의회(이하, "전협")의 제1회 중앙위원회를 博多교회에서 가졌다. 8명의 임원이 모여 주로 올해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 주제를 제시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관점에서 한 해를 활동하기로 결의했다.

주일에는 각 임원이 서남지방에 있는 각 교회에 방문했다. 회의를 가진 博多교회를 비롯해 小倉교회, 熊本교회, 福岡교회, 福岡中央교회, 別府교회, 그리고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下関교회를 포함한 7교회를 방문하여, 주일예배 참석과 함께, 예배중에 전협의 PR도 하며 많은 신도들로 부터 후원을 받았다. 방문한 교회

에서 우리 청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 다음의 수양회에서 재회를 약속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였다.

지금까지 서남지방회 청년들과의 교제는 적었지만 주님께서 청년의 고리를 서남지방까지 넓혀 주신 것을 느낀 귀한 기회였다. (보고: 나카노 아키노리)



청년희망그리스도교회

제2회 중앙위원회 개최 제20회 청년연수회 개최에 대해 논의

2020 년 1 월18 일(토)~19 일(주) 해가 바뀌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 우리 청년회 전국협의회(이하 전협) 회의를 東京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 가졌다. 8 명의 임원이 모여 전협보고, 지방회보고, 그리고 각부



보고로 시작하고, 회의 시간의 대부분은 3월20일(축)~21일(토)까지 니시야라이 교회에서 개최되는 '제 20 회 청년을 위한 연수회'에 대한 것이

었다.

올해는 20 회라고 하는 기념으로,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주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와 <인생의 선택>으로 하고, 이 <인생의 선택>은 진로와 유학, 취업, 전직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에게 조금이라도 해결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로 인생의 선택을 한 청년이 간증을 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東京희망그리스도교회의 신대영장로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 주일에는 東京희망그리스도교회를 비롯하여 千葉교회, 川崎교회, 品川교회, 横須賀교회, 그리고 東京동부교회를 포함한 6교회를 방문하고 전협 활동보고와 후원 부탁을 드렸다.

각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과도 교류를 가지고, 각각 은혜 있는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올해 임원이 되어 4 개월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모인 임원 청년년을 성령님의 충만한 연수회로 되기 위해 노력해 가고 싶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청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찾고 있는 청년, 그러한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한다. (보고: 이누이 하루키)

참가추기

아시아 에큐메니칼 여성총회에 참가하여

정 시 온 (大阪教会、関西学院神学大学院在学中)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주최로 첫 아시아 에큐메니칼 여성총회가 2019 년 11 월 22일~부터 26일, 대만기독교 장로교회(PCT)의 신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려다. "일어나 눈을 뜨라.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여 화해하라" 라는 주제로 21 개국 253 명의 참가자가 모였으며 나는 제일대만기독교회의 추천을 받아 참가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각나라 창조세계 전체의 생명과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날 강연은 PCT의 Vavauni Ljaljegean 원주민전도사가 이번 총회의 주제에 관하여 구약성경에 나오는 소리없는 다말이 당한 고통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대만 원주민 여성의 상황을 알려주었다. 존엄성을 상실한 다말과 대만 원주민 여성은 같은 괴



로움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지 않는 소외된 존재라고 Vavauni 전도사는 눈

물을 흘리며 증언 하였다.

둘째 날 이후의 강연과 패널프레젠테이션에서는 창조 세계의 회복과 새로움, 화해를 주제로 각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는 신학자, 목사, 그리고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의 여성 대표들이 말제하였다. 특히 이슬람신학자 Dewi Candraningrum 박사가 인도네시아 위안부 문제의 대한 연설이 인상적이었다. 가해자와 화해하려는 위안부와와의 연대를 예술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색상으로 그려진 위안부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워크샵에서는 각 나라에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아시아의 에큐메니칼 사역에 참여하는 행동과 실천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 나는 청년 워크샵 주최자로 참가하여 여성의 학력과 취업에 대해, 그리고 홍콩의 현재 정치상황에 대해 말제하였다.

이번 총회는 오늘날 작은 자로 세워진 사람들과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귀를 기울여 듣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였다.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일에는 교파나 종교에 관계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방문기 <4>

오사카교회 정연원 목사

6. 칠골교회를 방문하다

본 총회 방문단은 2019년 7월28일(주일)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본부 방문과 봉수교회에서의 주일예배를 드린 후에, 평양시 서쪽에 위치한 광복거리(光復通)에 위치한 칠골교회를 방문하였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고생을 하고 있던 평양에 은혜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칠골교회에서는 오경우목사와 부목사, 장로, 성가대원들이 예배를 마친 후였지만 우리 대표단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경우목사는 ‘조그런’ 서기장을 지내기도 하였으며 2002년 7월 도잔소에서 개최된 제8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동경회의에 강연섭위원장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으로 이번 방문에서 그간 본총회와 연관된 행사에 직, 간접으로 관계된 인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분이기도 하다. 차에서 내리는 우리 일행을 우산을 들고 주차장까지 내려 와서 맞이해 주었다.

칠골교회의 역사는, 1899년 당시 평양 만경대구역 칠골동(七谷) 하리(아래동네, 下里)에 위치하고 있었다. 홍신길이란 분이 전도를 받아 판동교회(板洞教會/1893년 후에, 평양장대현교회로 변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우들 13-14명의 중심이 되어 세 칸 초가집을 사들여 ‘下里교회’를 세웠고 이후, 칠동교회(七洞教會)로 불렸다. 1914년 홍신실씨의 아들인 홍성준씨가 초대장로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金日成(본명 김성주)주석의 외가(外家) 친척들이 출석을 하게 되었다. 김성주의 외할아버지(外祖父) 강돈옥(康敦煜)장로는 엄격한 신앙을 가진 강서(江西)지방의 교육자로서 하리교회를 섬기고 창덕학교를 설립하여 후학에 힘을 쏟았다. 김성주의 부친(父親) 김형직(金亨稷)은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만경대에서 태어났다. 숭실학교를 중퇴한 후 만경대에 있는 순화학교 교사를 하였다. 민족 지도자라고 부르는 조만식(曹晩植)장로는 김형직을 학교 후배라고 하였다. 김형직은 부인 강반석(康盤石)을 미국 선교사 ‘넬슨 벨’의 중매로 만나게 되었다. 넬슨 벨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인으로 그가 그 부부의 혼인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빌리 그레이엄목사가 생존시 김일성을 여러 번 만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시절 김일성(본명 김영주)은 부모를 따라 송산교회에 출석을 하였지만 칠골교회에서 몇 년간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외가댁 친척인 강양옥목사에



게 성경을 배우고, 외할아버지가 기독교정신으로 설립한 <창덕彰德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김일성주석 회고록1권>에 나와 있다. 1895년 미국장로교 선교사가 최초로 복음을 전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6.25동란으로 인해 교회당은 파괴되고 교인들은 분산되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광복거리가 만들어지고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었지만 1989년 칠골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일화에 의하면, 김일성주석이 광복거리 현지 지도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한다. 김주석은 이 지역을 돌아 본 후에 자신이 유년시절 다녔던 교회를 떠올리며 “칠골 창덕학교 뒤에 교회가 있었는데 만일 교인들이 요구하면 그 자리에 교회당을 세워도 좋겠다” 하여 수행했던 김정일(당시, 祕書)에게 실무적인 책임을 맡기어 옛날 ‘하리교회’를 찾아 교회당을 건립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칠골교회는 1992년 처음 건축한 교회를 그대로 둔 채로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였다. 장소는 세번째 만든 현재의 교회당 전에 건축된 것이다. 11월22일 추수감사절을 겸하여 드린 헌당식에는 조그런(朝基聯) 위원장 강영섭목사(康永燮/現, 康明哲 위원장 부친), 서기장 고기준(高基俊)목사와 봉수교회 이성봉 목사들이 참석하였다. 두번째 예배당에서는 22년간 예배를 드렸는데 남한 교회 지도자들과 해외에서 평양을 방문한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으며 ‘빌리그레이엄목사가 방문하여 설교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3년 4월부터 2013년 4월말까지 1년 3개월 만에 3번째 교회당을 건축하였다. 우리 방문단이 교회를 들어설 때에 성가대는 찬양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고, 오경우목사가 칠골교회 소개와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하였다. 주일예배를 마친 후였기에 교우들을 만날 수는 없어 섭섭했지만, 우리 방문단을 맞아주신 교회 지도자들, 특히 성가대원(14명)은 몇곡의 힘차고 아름다운 찬송을 불러 주셨다. 우리 방문단도 화답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사진도 찍고 성도의 교제를 기쁨으로 나누었다.



칠골교회 옆에는 ‘반석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칠골교회당과 칠골혁명전시관, 창덕학교가 있어서 김일성주석의 유년시절과 그 어머니를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 남과 북, 해외 동포 신도들이 하나되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쁨의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칠골교회를 나눴다. 비가 오는 그 주일 우산을 바쳐 주시던 오경우목사와 교우들은 우리 자동차가 교회 주차장을 빠져 나올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